



**2013** PUBLIC EXAMINATION

# Heritage Korean

**Section 1: Responding to texts**

## Transcript of Listening Texts

- Text 1
- Text 2
- Text 3

### Familiarisation Text

MALE : 김선생님, 안녕하세요?

FEMALE : 네, 이선생님 오랜만이에요.

MALE : 그 동안 잘 지내셨어요?

FEMALE : 네, 별 일 없이 잘 지냈어요.

## Section 1: Responding to texts

### Question 1, Text 1

지금 세계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. 지진, 홍수, 가뭄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또한, 온난화 현상 때문에 쌀, 옥수수 등이 잘 자라지 못해서 210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반이 굶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. 환경 파괴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.

그렇다면 세계 시민의 한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? 작은 것이라도 실천! 실천해야 합니다!

우리 학교에서는 에코 스쿨 프로그램 즉, 녹색 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에너지 절약, 나눠 쓰기, 재활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.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!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오피스에서 인포메이션 패키지를 받아 가세요. 3월 15일까지 지원서를 내십시오.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뽑아 “녹색 프로그램상”을 주겠습니다. 내년에는 지역 사회, 국제 사회와 연결한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.

학생 여러분,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녹색 학교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?

## Question 2, Text 2

인호: 수미씨, 지난 금요일 회사 저녁 식사 모임에 왜 안 나왔어요? 열두 명 중에 다섯 명만 와서 팀리더가 크게 실망했어요.

수미: (부드럽고 차분하게)인호씨, 저는 회사 일 끝나고 식사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. 일과 개인 생활은 구분 되어 하지 않을까요?

인호: 개인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지요.

수미: ‘일은 인생의 전부!’ 그건 옛날 얘기에요. 또 저녁 식사 할 때 음식 주문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. 왜 다 똑같은 음식으로 맞추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.

인호: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같은 팀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잖아요? 전체 분위기를 따르자는 거죠.

수미: (냉소적으로) 저는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싫고, 찌개를 시켜서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는 것도 싫고, 반찬을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정말 싫어요. 왜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팀워크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요?

인호: (혼내듯이) 수미씨,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.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서로 나누는 것은 한국 전통이에요. ‘한 밥상 한 가족!’ 앞으로는 팀장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세요!

수미: (짜증 내며) 왜 무조건 따라야돼요? 일할 때는 크리에이티브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잖아요? 그런데 왜 무조건 따르라고 해요? 저는 개인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

### Question 3, Text 3

아버지: 여보, 해리가 왜 저래? 내가 아까 성적때문에 화 났다고 저러나?

어머니: 해리가 요즘 반항하는 것 같아요.

아버지: 그러게. 우리와 말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 
알아요?

어머니: 글썽요. 학교 갔다 오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뭘 하는지 문 닫고 잘 나오지도  
않아요.

아버지: 내가 얼마 전 대학교 학과 선택에 관해 얘기를 해 봤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 
짜증만 내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.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대학 시험이 얼마 남지  
않았는데……. 시험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.

어머니: 해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

아버지: 아니,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이랑 전화만 하고, 밥 먹을 때도  
계속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, 도대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. 요즘 집에  
늦게 들어오던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닌지 어디 있다가 오는지 당신  
알아요?

어머니: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래요.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 
앉아있고. 아휴, 나도 정말 답답하고 걱정돼요.